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모전 수상작

60+ 새로운 시작

참여노인 | 대국민 | 어린이

목차

01.

참여노인 수기

1	책을 사랑하는 너, 그런 널 사랑하는 나 김병조	06
2	아름다운 이별 경일수	10
3	오늘도 걷는다. 박미순	14
4	이번 정차역은 충무로역입니다! 김성	18
5	나는 바리스타! 노인도 일하면서 성장한다! 이승복	24
6	함께 배우며 소통하는 학습도우미 이봉숙	28

02.

대국민 수기

- | | | |
|---|---------------------------------------|----|
| 1 | 노인일자리 사계(四季), 그리고 봄
여송이 | 38 |
| 2 | 다문화가정 학습지도 어르신선생님 ‘컵쿤캡(감사합니다)’
유창열 | 44 |
| 3 | 그들은 일할 수 있다.
하미희 | 48 |
| 4 | 아이 캔 두 잇
박서연 | 54 |
| 5 | 울면서 보낸 어린 시절, 이제는 매일 웃어요
유화자 | 58 |
| 6 | 문제 일으키는 어르신에서 인정받는 어르신으로의 과정
조은비 | 60 |

03.

어린이 공모전 수상작

- | | | |
|---|-----------|----|
| 1 | 어린이 감사 편지 | 67 |
| 2 | 그림 수상작 | 77 |

01

참여노인 수기

- 1 책을 사랑하는 너, 그런 널 사랑하는 나
김병조
- 2 아름다운 이별
경일수
- 3 오늘도 걷는다.
박미순
- 4 이번 정차역은 총무로역입니다!
김성
- 5 나는 바리스타! 노인도 일하면서 성장한다!
이승복
- 6 함께 배우며 소통하는 학습도우미
이봉숙

책을 사랑하는 너, 그런 널 사랑하는 나



김병조

(사)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도봉통합취업지원센터

2023년 1월 13일 오전 9시 42분,

한 통의 문자가 내 인생의 제 3막을 열어주었다. ‘안녕하세요.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시니어 북딜리버리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서둘러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직무교육을 이수 한 후 도봉문화정보도서관으로 근무지 배정을 받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다. 아내는 상기된 얼굴로 오랜만에 출근을 하는 내 옷매무새를 고쳐 주었다. 모든 것이 새롭다. 싱그러운 아침 해가 새롭고, 차갑게 코끝을 스치는 상쾌한 바람도 새롭다. 집에서 10분 거리, 평상시 자주 이용하던 곳에 기에 친근하게 여겨지는 도서관이지만, 고객이 아니라 도서관의 한 일원이 되어 일터로 출근을 하게 되니 가볍게 흥분이 되고 작은 떨림조차 기분 좋게 느껴진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은 국가사적 ‘서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이 있는 곳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2023년 올해 분묘군 보수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곳이다. 초안산 도봉 둘레길의 앞으막한 언덕길을 오르면 숲속으로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의 웅장한 모습이 보인다. 그 래 저곳이다. 이곳이 이제 내가 1년 가까이 근무하게 될 나의 일터이다.

할 일이 있는 하루의 시작은 이렇게도 다른 것인가? 무기력하게 시작하던 어제와 같은 시간 다른 기분, 일이란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인가. 솔하게 이 길을 걸었던 막연한 발걸음과 일터로 향하는 목표가 있는 발걸음의 차이는 이렇게도 큰 것이었던가. 커다란 상념에 젖어 언덕길 계단을 내려와 도봉 문화정보도서관 정문을 향해서 섰다. 다시 한번 옷 매무새를 고치고 정문을 밀고 들어서자 오른쪽 벽에 그동안 늘 보아왔던 포어가 눈에 들어온다.

“책을 사랑하는 너, 그런 널 사랑하는 나”

늘 보아왔던 황금빛 네온으로 빛나던 표어가 오늘따라 더 눈부시게 내 가슴을 향해 다가왔다. 이곳으로 배정받은 4명의 동료와 함께 일자리 담당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관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최종 근무지인 종합자료실로 향했다. 종합자료실 직원들의 따뜻한 영접 속에 종합자료실에 대한 소개와 내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많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나 하루빨리 업무를 익혀 근무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이 종합자료실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속의 다짐을 되뇌이면서 성실하게 근무에 임할 것을 결심하였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종합자료실

이곳에는 없는 것이 없다.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고, 예술과 과학, 수학과 의학, 미술과 음악, 문학과 시, 헌법과 경제, 환경 등 세상의 모든 만물이 모여 있는 곳이다. 논어와 맹자가 있고, 니체와 프로이트가 있고, 도올과 이어령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으며, 신화와 사유, 공감과 이타심이 있고, 복지와 돈 버는 방법이 있다. 박경리의 토지가 있고,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있다. 마치 우주를 축소한 듯 작은 세상이 이 곳에 있다. 나는 이곳 도서관이 참 좋다.

이 곳에 있는 모든 책들은 각각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고 크기나 두께도 다르다. 특정 학문이나 주제에 속하지 않는 분야인 0번대인 총류와 100번대 철학은 역시 두께도 두껍고 듬직하다. 600번대는 예술 분야답게 모양이나 크기 두께 등에서 다른 종류의 책들과 확연히 다르다. 장서수에서 가장 많은 책들이 모여 있는 곳은 800번대의 문학이다. 전체 장서수의 절반 이상이다.

나는 스스로 이 책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른다. 분야와 주제 그리고 제목 등이 각각 다른 이 아이들을 볼보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아이들은 서고에 각자 자기의 자리를 배정받고 색깔 모양 등 다양하게 꾸미고 자기를 드러내어 독자들에게 선택되기를 기다린다. 자주 선택되어 매일 드나드는 아이들도 있고, 거의 선택되지 못해서 늘 자리만 지키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 서고에서 드나 드는 아이들을 보면 세상을 읽을 수 있다. 시니어들이 보기 편하도록 기존 도서보다 큰 활자로 인쇄하여 제작된 큰 글자 책들만 모아놓은 서가도 있다. 큰 글자 책 중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는 책은 『요즘 애들』이다. 시니어들의 관심사를 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쩌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려는 시니어들의 노력이 『요즘 애들』을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 색깔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한눈에 확 들어오는 아이도 있고, 수줍어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자꾸만 책들 사이로 숨는 아이들도 있다. 대부분의 개인별 시집들은 얇거나 작아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의 유희가 난무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처럼 말이다.

독자들에게 선택되어 외출을 하고 돌아온 아이들을 상하거나 다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또다시 독자들에게 선택되도록 자기 집을 찾아 돌려보내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오늘도 외출을 하고 돌아온 아이들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책 수레에 싣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책 향기에 감싸인 서가로 향한다. 아이들은 자신을 선택해준 독자들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준다. 독서를 하는 내내 정성스럽게 보살피 준 사랑스러운 독자를 칭찬하는가 하면, 책을 내던지거나 함부로 다루어 구겨지고 책장이 찢겨지는 부상을 입히는 독자를 성토했기도 한다. 아이들의 다양한 조잘거림을 들으며 아이들의 자리를 찾아 정돈해 준다.

이제는 십진분류표에 따라 분야별 위치를 완전하게 파악했다. 도서관 이용자분들이 원하시는 책의 위치를 물어오면 친절하게 안내하기도 하며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책을 찾아드릴 수 있게 되었다. 원하시는 책의 위치를 찾지 못해 헤매는 분께 책을 찾아드릴 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작은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역량과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봉사의 방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열려있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센터에서는 팀장님의 근무지 방문이 이어진다. 다음 달의 근무 일정표를 전해 주시며 불편사항이나 근무 일정을 조율하고 근무 시 주의사항과 우리들의 건강상태를 자상하게 보살피 주신다. 우리들은 이날 팀장님을 통해 강한 소속감과 안정적인 유대감을 느끼고, 대한노인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어느덧 싱그러운 5월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스승의 날이 이어지는 가정의 달이다. 그리고 내겐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달이기도 하다. 새로운 일터에 정착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상쾌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벼운 콧노래로 출근 준비를 한다. 이제 나에게 출근은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다. “다녀오세요.” 상기된 아내의 출근 인사를 뒤로하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한다. 신혼시절 그 출근처럼 말이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출근 이후 달라진 내 모습이다. 도서관 현관문을 들어서 출근부에 서명을 하고 근무처인 종합자료실에 들어서면 코끝으로 전해지는 책 냄새에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 “안녕하세요?” 밝고 활기찬 두 분 사서의 인사가 가슴을 울린다. 이 두 분은 어쩌면 소중한 내 인생의 마지막 친구일게다.

나는 이 출근길이 참 좋다.



아름다운 이별



경일수

안성시노인복지관



계절이 바뀌고 쳇바퀴 돌 듯 돌고 도는 일상
 똑딱 똑딱 시계 초침 소리는 우리의 발길을 움켜잡는다.
 삶과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죽음이 가까워질 수 록 멀리 돌아가고 싶어진다.
 아침 햇살, 저녁노을로 꾸며진 하루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본다.
 다가올 미래의 작은 희망을 손 모아 다듬질한다.

어느 날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 연락을 해왔다.

안성시노인복지회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지원해 보라고 하셨다. 지인의 권유를 받고 몇 해 전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순간, 아!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누군가의 소중한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 되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삶의 활력을 찾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2023년 노인일자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도우미에 지원하였다.

지원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았지만 최종 선발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2월 1일 노인일자리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2월 17일에는 서울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개최한 제 7차 노인일자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직무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상담사의 역할과 자세, 마음가짐 등을 교육받는 동안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가슴 뽐뽐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재미있는 소설을 읽듯이 자료집을 보고 또 보고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물음에 대해 나에게 묻고 또 물러가며 답을 찾았다.

삶은 고귀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기를 바라며, 인연의 끊을 놓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점의 아쉬움도 없는 아름다운 이별을 가슴에 담고 싶어 한다. 그런 소망에 대해 나는 의료연명결정제도를 귀뜸해 주고 싶다. 이것이 내가 찾은 해답이었고 물음에 대한 답을 실천에 옮기는 시간이 다가왔다.

2월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3월 2일부터 동료상담사와 2인 1조가 되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병원에서는 3월과 4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하기로 하였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원인 만큼 대민서비스교육도 받았지만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업무지침을 준수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업무에 임하였다.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고 의향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약속한 두 달이 지났다. 두 달 간 의료원에서 작성된 의향서 실적이 예상외로 높고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우리의 근무태도가 매우 좋게 평가되어 사업 종료 시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하루 3시간의 짧은 근무를 하지만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하려한다. 내가 사는 곳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작은 시골이고 진료를 위해 의료원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고령층이 대다수이다. 혼자 거동하기가 불편하고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하여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지나가다 눈이 마주치자 “응, 나 그거 공단에서 했어.” 하며 반가운 표현을 하시는 분, 눈도장을 찍고 가시는 분, “다음에 할게.”하고 가시는 분, 병원로비 한켠에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훑쳐보듯 걸개글을 보고 있기에 반가운 인사로 리플렛을 건네주며 “읽어 보세요~”하면 “아들한테 물어봐야 돼...”하는 분, 불현 듯 다가올 미래의 내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부부가 상담도 중 남편이 서명하려하면 아내가 손을 짓고, 아내가 서명하려하면 남편이 손을 짓다가 돌아선다.

어느 날은 20대쯤 보이는 젊은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 “제가 해도 돼요?”라고 물어본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을 가능함을 안내하고 작성을 진행한다. 의향서를 작성하는 연령대는 다양하다.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야만 의향서 작성이 가능했는데 의료원에서도 작성 가능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찾아오고 좋은 일 한다며 응원도 해주어 하루하루를 희망차게 근무한다.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특색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도우미’사업이 선정되면서 6월 5일 경기도청 노인복지과에서 우리가 근무하는 곳에 현장 방문을 나왔다.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와 현장 근무 시 어려운 점 등을 확인하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을 수 있었다.

6월 22일에는 경로당 방문 요청으로 찾아가는 상담 및 등록을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상담소는 기관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4명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의향서를 작성하였다. 우리의 장문에 도토리 빈대떡을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은 후 한옥마루에 앉아 차담을 나누었는데 교장 은퇴 후 마을 이장으로 봉사하시는 이장님의 사연에 감명을 받았다. 삶의 욕망보다는 가슴속에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설계하자고 다짐을 하며 돌아왔다. 경로당에서 다녀온 후 여느 때처럼 의료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분이 우리를 보시더니 우리 동에 왔던 분들이라며 알아봐 주셨다.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나의 조그마한 정성이 인연의 열매로 돌아옴에 행복을 느꼈다.

계절은 여름으로 서서히 달음박질을 하고 7월 6일, 경기도 6개 연합 실무팀인 의료본부에서 우리가 의료원에 파견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러 왔다. 또 안성시에서는 우리의 활동을 지역신문 소식지에 게재한다고 한다. 노년의 삶. 인생의 길은 여러 길이 존재하지만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작고 따스한 손길이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면 누군가의 가슴속엔 희망이 되었을 것이다.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얼굴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

머리를 곱게 빗은 엄마를 두 팔 벌려 가슴에 껴안고 부축하며 눈인사하는 마음 아픈 모습.
황혼의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발걸음을 옮기는 다정한 모습.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방긋 미소 짓는 어린 천사들의 모습.

그 모습들이 머리속에 그려져 웃음 짓게 한다. 사랑이 넘치는 삶의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며 공존한다는 것은 노년의 삶에서는 쉽게 느끼지 못하는 진한 행복이다.

한 달에 두 번 상담사 동료들과 미뤄두었던 숨은 이야기들을 따듯한 차 한잔과 함께 나누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혀는 재는 여지껏 혹은 앞으로 느껴보기 힘든 감동의 드라마가 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뜻깊게 시작한 2023년, 건강과 행복까지 챙기게 되었다. 막혔던 숨통을 열어주고 우리의 가슴이 따듯해 질 수 있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정부와 안성시노인복지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안성시노인복지화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와 평생교육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다. 열심히 장구를 두드리다보면 마음속에 행복이 물밀 듯이 밀려온다. 지금은 초록들판이지만 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들녘을 이루면 장구 장단에 맞춰 허수아비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그려본다. 올 해 내 나이 70으로 「인생칠십고래회」라고 했지만 나에게 인생은 칠십부터이다.

안성시노인복지회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도우미 화이팅!



오늘도 걷는다.



박미순

(사)삼성희망네트워크



“엄마, 율이가 희귀병으로 생존율이 50%래. 애를 잃을 수도 있잖아~”

2018년 2월 말, 2017학년도 종업식 겸 퇴임 기념 회식 중 걸려온 전화에 딸이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하며 울먹였다. 낮에 한쪽 눈두덩이가 부은 손녀를 데리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간다는 내용의 카톡을 잠깐보긴 했는데... 오늘 퇴임으로 너무 바빠 정신이 없었다. 복직 후 28년간의 교직을 마무리하는 날, 요즘 추세는 퇴임도 개인적인 일이라, 1990~2018년의 학교와 개인의 변천사가 담긴 8분짜리 동영상을 본인 스스로 제작하여 마지막 직원회의 후 상영하는 것으로 퇴임식에 갈음하니 특히 젊은 샘들이 신선하고 재밌는 영화 한 편 본 것 같다며 앞으로 퇴임식은 이렇게 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 나 역시 뿌듯함에 젖어 있을 때 받은 전화라 그야말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율이는 내가 퇴직 후 돌보기로 한 손녀다. 위로 세 살 터울 오빠가 있어 남매를 맡기고 중등 영어 교사인 딸이 복직하기로 오래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퇴직하던 날 아이가 희귀병이라니... 퇴직 후 손주 돌보러 서울 간다고 할 때 동료들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웃었는데, 그 소박한 바람마저도 깨어지니 참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오니 그 누구도 수고했다는 말,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고 돌덩이를 가슴에 얹고 눈물로 꼬박 밤을 지새워야 했다. 평소에 무척 살갑던 딸은 절망으로 신경이 곤두서 무슨 말을 해도 날이 서 있고, 남편도 무거운 집안 공기를 피해 밖으로만 돌아다. 늘 시골벽적하던 교실에서 아이들과 정신없이 보내던 분주한 시간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다. 갑자기 내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불면증을 이기려고 운동을 해봐도 오히려 무릎과 허리디스크가 도져 병원과 한의원을 드나들기에 바빴다. 거기다 시어머니께서 이제부터 내려와 농사를 거들라는 바람에 참았던 감정이 폭

발하고 말았다. 맞벌이 와중에도 늘 집안 대소사를 챙기며 열심히 살았던 나 자신이 바보스러웠다. 결혼생활 40년간 명절에 친정 한 번 못 갔고, 어느새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다.

유독 나한테만 들이대는 유교적 효와 높은 기대치에 지쳐 공격적이고 까칠하게 변해가며 매사 의욕이 없이 시들어 가는 나에게 자식들이 가족상담을 권했다. 그것 또한 나에게서는 상처였다. 교육심리와 상담학을 전공해 누구보다 그 분야의 일을 잘 해왔다고 자부하던 내가 어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싶어 혼자서 정신과를 방문하니 퇴직 우울증이라고 했다.

그렇게 병원과 도서관, 문화센터를 들락거리며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요즘 노인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 퇴직공무원들을 정보지킴이 강사로 양성시켜 활동하게 할 계획인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년은 가능하지만 후 내년은 힘들다고 했더니 알겠다면 끊었는데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 복구에서는 신청자로 내가 유일해 내년만이라도 참여하라고 해서 동참하게 되었다. 드디어 2019년 11월 25일부터 3일간, (사)삼성희망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 60+교육센터에서 협업하는 「찾아가는 정보 보호 지킴이」의 알차고 심도 있는 양성과정을 이수했다. 전직 방송인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접하면서 우리는 실버강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었다. 주관하시던 분이 젊은이를 고용하면 임금도 우리의 4배가량 주어야 하고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하는 것은 퇴직공무원이 가장 적격이라며 부산과 광주를 시작으로 성과가 좋으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무튼 우리는 2020년 2월부터 활동하기로 하고 남은 두 달도 끊임없는 자기연마로 좋은 강사로 거듭나기 위해 내공을 쌓으며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2월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삼성희망네트워크에서 연락이 왔다. 그렇게 또 두어 달이 지난 4월 어느 날, 다시 3층 강당에 모여 일정 기간 재교육을 받고 5월 한 달은 교육생들끼리 돌아가며 시범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삼성희망네트워크 직원분들의 친절하면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과 동고동락한 동료들 간의 서로 끈끈한 정을 느끼며 누구보다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남다른 각오로 6월부터 사무실에서 지정해 주는 장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우리 팀은 복구 실버벨노인복지관 입구에서 책상과 의자를 놓고 설문지를 배부하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월말에는 통계를 내어 사무실로 보고하는 형식의 근무를 했다.

다행스럽게도 금곡북구노인복지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 한 주간 강의를 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피싱, 발신번호변작 등의 피해 예방교육을 실제 피해사례를 들어가며 동영상을 활용한 강의에 그분들도 경청했고 어떤 분은 다가와 개인적인 상담도 청하시니 무언가 도움을 드렸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강의가 더 이어지지 못한 게 무척 아쉬웠다.

<2020.7.15. 금곡북구노인복지관>

네 명이 팀을 이루어 근무했는데 세 분은 다른 구에서 오시니까 3시간 근무를 위해 3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늘 웃으며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난다. 그것도 잠시 8월 15일경 코로나19가 더 심해져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코로나가 심해지니 딸의 학교에서도 좀 앞당겨 복직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어차피 내가 쉬고 있으니 애들을 맡기로 했다. 그래서 그다음 해(2021년)까지 정보지킴이 활동을 쉬었다. 문제는 2022년도에는 꼭 참여를 해야했는데 율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한해만 더 돌봐주고 싶었다. 이제 완치판정은 받았지만 첫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병이 재발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퇴직 후 느낀 점은 노후의 인생도 어느 때 못지않은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제 젊지는 않다. 그러나 늙지도 않았다. 그저 삶의 한가운데서 있을 뿐이다. 내 삶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올해도 안 오면 여기 당신 자리는 이제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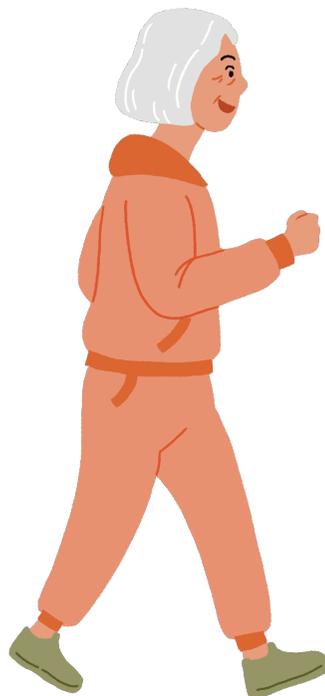
무엇보다 암울했던 퇴직 후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 준 삼성희망네트워크가 아닌가. 세금으로 고품격 교육을 받은 만큼 꼭 갚아야 한다는 마음의 빗이 있었다. 애 돌보기는 이제 1년이면 끝나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짐을 싸서 내려왔다. 다행히 좋은 이웃분이 남매를친자식 이상으로 잘 돌봐주신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우리도 젊었을 적에 그렇게 해 왔지 않은가.

이제 남은 삶을 중히 여기고 건강을 잘 챙기며 경제적으로도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 대책은 필수다. 그러려면 노인 일자리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예전에 1학년 담임 때 육아 문제로 퇴직한 실력 있는 어머니들을 많이 보았다. 만약 이 노인 일자리를 그들에게 준다면 정말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잘해 낼 것이다. 어차피 그네들도 바쁜 육아로 하루 3~4시간의 여유밖에 없다. 임금이 적은 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짧은 것이다. 그 맘들이야말로 이런 쏫타임 알바가 필요한데 그래도 국가가 우리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다. 혹시라도 ‘따놓은당상’이라고 별다른 노력 없이 그저 시간 떼우기로 일관한다면 국가도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에 계속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요즘은 캠페인 활동으로 많이 걸으니 건강이 좋아져서 병원 갈 일이 없다. 사무실에 널 자료와 강의 준비로 틈틈이 컴퓨터도 해야 하니 뇌도 쓸 수밖에 없다. 몸과 정신이 쉬 노쇠하지 않을 만큼의 일이 있음에 늘 감사하고 덤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돌보는 시누이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 뿌듯하다.



이번 정차역은 충무로역입니다!



김성

종로시니어클럽



어쩌다 다다른 막다른 역

인생을 살다 보면 휘청이게 되는 순간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내 나이 69살에 그런 절망을 맛보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철거업자들 손에 강의실 벽이 무너지고, 안내 데스크가 사라지고,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름이 훈장처럼 박혀있던 포스터가 찢겨 지는 광경은 꼭 내 인생이 철거되는 것만 같았다. 나는 학원 강사이자 원장이었다. 25년간 1년 365일 중에서 설, 추석 명절을 제외한 363일을 근무했으니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낸 인생이기는 하였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코로나 역습을 피해갈 수 없었다. 코로나로 인해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폐업과 건물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를 진행하며 매일 매 순간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었다.

맨 먼저 잘 나갈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슬픔이 밀려왔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나라에 떨어지지 않았을텐데.’ 사람도 아닌 코로나를 슬하게 원망도 해보았다. ‘젊다면 다시 일어서기라도 하겠지만 과연 내 나이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 지인들이 ‘아이고, 쫓쫓 안됐네.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말년에 안됐네...’ 라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것만 같았다. 자기연민과 자격지심 사이를 하루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였다. “과거의 나에 집착하지 말고 또 현실에 안주하지도 말자!”고 애써 마음을 다잡아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막막함 뿐이었다.

자기연민과 자격지심, 막막함으로 시간을 견뎌내다 내 인생을 서서히 다른 눈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참으로 쉽없이 달리기만 했던 길이었다. 차에 흠집이 나고 타이어가 닳아 교체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삶의 안전벨트를 숨막히게 조이고 달리기만 했다. 한편으로 이제 삶을 조이고 있던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풀 때인가 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나에

계도 길이 있을까? 나의 길은 아직도 내가 뚜벅뚜벅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두려움에 몇 날 며칠을 잠을 설쳤는지 모른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새로운 시작, 내 인생의 환승역

무엇이든 다시 시작해야 했다.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의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라는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플랜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뭔지 모를 위로와 함께 나도 모르게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조금은 낯설었지만 내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생각지 않았던 시니어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센터에 등록을 하고 재취업교육을 소개받으며 무엇이랄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스마트 활용법’,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았다. 유달리 승강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재미있었고 활동해보고 싶었다. 이 묘한 설렘,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교육을 받고 난 후 작년 4월에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소개로 종로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니어승강기안전단’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면접날 내 이름이 쓰인 승강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을 꼭 품에 안고 종로시니어클럽으로 향했다. 면접장에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고 접수를 하고 내 차례를 기다렸다. 내 순서가 되었을 때 나에게 “왜 시니어승강기 안전단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면접관이 물으셨다. 난 조심스럽게 이수증을 내밀며 “이전에는 승강기 안전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 이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데 무언가 책임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나의 마음에 몽클함을 맺게 했으며 오랜만에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는지 합격 전화를 받았고, 그렇게 종로시니어클럽 소속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일원이 되었다.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받은 교육은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긴급조치요령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마침내 5월이 왔다. 가슴 설레며 손꼽아 기다리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승강기 안전요원로서의 생활은 꺼져가던 내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 빛은 3개월만 반짝였을까? 지금도 반짝이고 있다. 난 올해,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무로

역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충무로역 승강기 안전단원이 되었다.

나는 충무로역 안전지킴이

대한민국의 헐리우드였던 충무로! 내가 일하는 충무로역은 하루평균 이용객이 4만7천여명에 다다른다. 남산골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명동을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다. 또한 3·4호선 환승역이라 출퇴근 시간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충무로역엔 18명의 시니어 승강기안전단원 ‘독수리 6형제’(자칭)가 3팀으로 구성되어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3교대로 근무를 한다. 독수리 6형제에게 충무로역은 어딘가를 가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돌보는 업무가 시작되는 곳이다. 카메라와 조명, 대본은 없지만 하루하루 현장감 넘치는 다큐멘터리 현장이다. 역사 내 총 22개의 에스컬레이터와 4대의 엘리베이터를 순환근무하여 안전을 점검한다.

출근 첫날부터 나의 직업병은 여지없이 발동하였다. 충무로역에서 하차 시 시민들이 편하게 내리실 수 있도록 “복잡하니 잠시 내리셨다 타주세요”라고 말하며 밀리는 인파의 안전을 살피며 지하철에서 내렸다.

충무로역 휴게실에서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이 새겨진 근무복을 입고 하얀 안전모를 착용하고 나를 포함한 독수리 6형제는 “화이팅!!”을 외치며 충무로역을 지키러 승강기로 향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안전점검표에 따라 섬세한 부분까지 살펴보는 일이다. 승강기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각자의 고유번호가 붙어있는데 내가 담당하는 승강기 번호대로 에스컬레이터 발판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그 위를 뛰어보고 직접 발로 밟아보고, 손잡이 흔들림 정도를 파악하거나 안전표시가 된 부착물이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 엘리베이터 안의 호출 버튼이 잘 작동되는지 손으로 눌러서 역무원과 통화도 하고, 조작 버튼을 누르고 출입문 가운데로 몸을 살짝 넣어서 문이 잘 열리는지 확인한다. 특히 30m가 넘는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아찔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승강기 앞을 지키는 일은 필수이다.

안전지킴이로서의 나날들

엘리베이터 이용수칙 첫 번째는 정원 및 적정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과하면 탈이 나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3대 안전수칙’ 중 첫 번째는 손잡이 잡기다.

하루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넘어져 에스컬레이터를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었다. 나는 승객들을 향해 “에스컬레이터 비상정지 버튼 누르겠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하고 소리쳤고, 즉시 빨간 비상정지버튼을 눌렀다. 승객이 넘어졌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작동 중이라면 중심을 잡고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 계속 넘어지고 구르게 되어 피해가 커지게 된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역무실에 연락해서 역무원을 호출했고, 역무원이 오는 동안 어르신을 부축하여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봤다.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으셨다. 상처난 무릎에 소독약을 바르고 진정시켜 드리며 “언제나 손잡이를 꼭 붙잡고 타세요” 했더니 어르신께서는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고생이 많네요.”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이분이 환하게 웃으시며 무탈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예기치 못했던 보람이 밀려왔다.

물론 작은 분쟁을 겪을 때도 있다. 충무로역은 에스컬레이터가 유난히 많고 길어 가끔은 거대한 에스컬레이터 폭포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바퀴가 달린 큰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이용객들이 계신다. 엘리베이터 이용이 원칙이지만 엘리베이터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가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시는 경우가 있다. 손자같은 청년이 큰 캐리어를 좁은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간신히 올려놓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달라고 할 때 “네.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나요?”라고 공손히 되묻는 청년은 사실 많지 않다. 때로는 눈을 흘기며 “다음에 그럴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라며 도망가듯이 등을 보이기도 하고, 성가시다는 듯이 휙 돌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이런 청년들을 만날 때 기분이 상해 원칙을 상기시키려고 소위 말하는 끈대의 어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몇 번의 경험을 통해 터득하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칙과 유연함이었다.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유연하게 통제하는 법을 터득하였다. 물론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누가 웃는 얼굴에 침 뱉겠느냐,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등을 보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메이 아이 헬프 유? 해브어 나이스 트립!

다행히 요즘은 코로나가 완화되어 충무로역에도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명동역 방향 승강장이나 지하철 출구를 찾다가 나에게 물어보는 때가 종종 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쑥스러워서 손동작으로 안내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외국인들은 “뽕큐”, 혹은 서투른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주곤 하였다. 이 정도는 바디 랭귀지로 해결할 수 있으니 난이도가 낮아 다행이다. 그런데 때로는 바디 랭귀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3호선으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꼭 짚어 목적지를 가리키며 보다 상세한 정보를 물어볼 때에는 난감할 때도 많았다. 그래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해서 명료한 답을 공부했고, 앱으로 지도 보는 법을 더 터득하였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4번 출구입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정도는 이제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뽕큐”라 말하면 “해브어 나이스 트립!”이라 자연스럽게 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늦었다고. 나이 많다고. 경험 없다고. 두려워하는 시니어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추천해 주고 싶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일터가 있고, 그 일터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나의 동료와 있고, 또 무엇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삶이 건강해진다고 말이다.

현재 내 인생의 정차역은 충무로역이다. 그 정차역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에스컬레이터와 승객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꼭 인생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에스컬레이터 오른편에는 딥고 선 계단의 속도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고, 왼편에는 그 속도 위에 걸거나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살아오면서 늘 왼편만 고집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오른편에 서서 에스컬레이터의 속도에 맞춰 오르고 내리는 여유를 누리며 내 인생 후반부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함께 도착하는 즐거움도 누리려고 한다. 안전지킴이를 수행하며 얻게 된 내 인생의 귀한 교훈이다.

나는 오늘도 충무로역으로 출근한다. 하얀 안전모를 착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출동이다.

지하철
4호선 423 총무로

2 출입구 Entrance

나는 바리스타! 노인도 일하면서 성장한다!



이승복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복지관

27년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직 생활을 마치고 2020년 은퇴했다. 조금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충전을 하면 재취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며, 유사 직종 분야에서 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시간은 흘러가고, 마음에 내키는 일자리 정보도 없었다. 그저 내가 하는 유일한 일은 종일 쇼파에서 유튜브의 세계에 흠뻑 젖어 손가락질 움직임 정도가 고작이었다. 매일 바쁘게 출근하는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눈치가 때로는 내 마음을 짓눌렀고, 그러면서도 주말에는 어김없이 그야말로 밥 세끼를 꼬박 챙겨먹는다는 ‘삼식이’ 행세를 했다. 작년 1월 아내는 눈 쌓인 길을 헤집고 흡사 나를 초등학교 입학식에 데려가는 분위기로 “요리아카데미 학원”에 등록시켰다.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듣는 강의들을 골라서 재빠르게 요리, 커피와 관련된 다수의 과정들을 등록했다. 당시 아내의 포스는 자녀 교육열에 불타는 흡사 강남 돼지엄마를 방불케 했다. 협의도 없이 이 무리한 학원일정은 무엇에 쓰려고 하냐고 나는 아내에게 타박을 했고, 그 이후로도 적지않은 언쟁을 이어갔으며, 부부싸움 때마다 단골주제로 등장했다. 그야말로 철없는 뒤끝작렬인 남편의 태도였다. 그렇게 떠엄떠엄 1년을 꼬박 요리아카데미 학원에 등록한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커피와 음료와 관련된 바리스타(Barista), 핸드드립 부루잉(Brewing), 믹솔리스트(Mixologist) 등 무려 3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커피와 음료의 전문가가 됐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나는 곧바로 취득한 자격증의 쓸모를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그 유명한 별다방, 콩다방, 동네카페 등 민간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노인이 된 나를 고용해 줄 리 없었다. 취업알선을 조력하는 요리아카데미 학원 멘토도 등록 때와는 달리 슬슬 뒤로 빠는 모양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다며 집근처 노인복지관 소속 카페에 지원해보자고 의견을 제안했다. 첫 느낌으로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앞섰던 한편, ‘내가 이제 정말 노인이구나! 내 일자리는 공공사업 일환으로만 해결될 수 있구나’ 하는 실망감도 교차했다. 그러나 그러한 자만은 요즘말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돼 버렸다. 집근처 구청 소속 복지기관 3군데나 지원을 했지만, 정녕 연락 온 곳

은 한 군데도 없었다. 믿기지가 않아 정말 떨어졌냐고 지원한 기관에 여러 번 확인했지만 명단에 없다고 했다. 순간 캄캄했다. 1년간의 요리학원 수강생 시절도 생각났고, 무엇보다 아내에게도 면목이 없었다. 그러던 중 부평 노인복지관 카페아띠 팀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 이력이 카페 업무를 하는 데에 적합할지,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근무할 수 있을지 미답지 않아 주저했다면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1월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최근 이렇게 기뻐던 적이 드물었다. 치매 어머니를 15년간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모신 세월이 15년, 세종시를 출퇴근하면서 쌓였던 피로감과 고됨으로 일그러진 내 삶이 살짝 기지개를 펴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2023년 1월 16일부터 내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었다. 첫 출근과 동시에 우리 부평 카페아띠 동료 분 카톡방에 초대되었고, 매일아침 원두와, 우유, 크림, 각종 음료 베이스 등 물품이 입고되었다는 동료분들의 소식이 활기차다. 더욱 놀라운 건 우리 카페아띠 총 20명의 식구 중 오로지 나 한명만 남자, 청일점이라는 사실이다. 4명씩 구성된 팀은 일주일에 2~3회,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 같은 팀 여사님들은 삶은 계란, 직접구운 과자, 찐 고구마와 옥수수 등 간식도 챙겨주시며 어리숙한 초보인 나를 격려해 주신다. 평생 살림 수십 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여사님들의 광속 손놀림을 나는 결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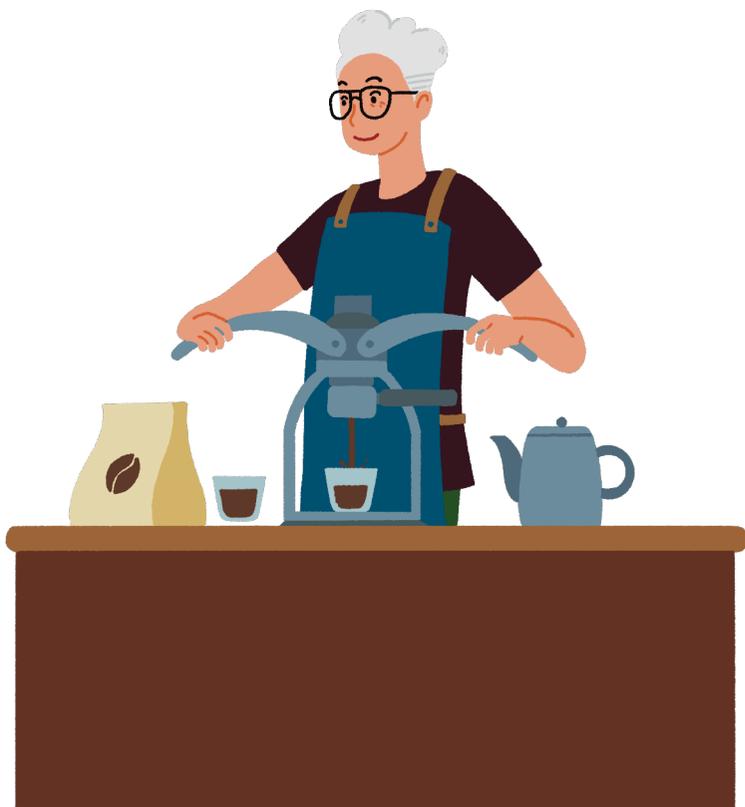
따라갈 순 없지만, 대신에 이른 아침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을 펴고 무거운 물품들을 나르며, 높은 수납장의 물품관리는 내 몫이다. 그 어렵다던 POS(Point of sale, 계산대앞단말기)도 이젠 마스터했다. 아이스와 핫 음료를 포함 100여개가 넘는 메뉴는 여전히 넘사벽이지만 틈틈이 레시피를 외우고 연습하고 있다.

우리 카페는 민방위 교육장과 이웃해있다. 내가 민방위 교육을 받을 그 까마득한 시절에도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이 그렇듯 나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다. 근무하는 날 민방위 교육훈련을 마치고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오게 되는 날이면 각기 다른 메뉴와 트렌디한 음료 주문으로 우리 팀은 매우 정신없고 바쁘다. 포인트 적립, 주문 후 취소, 제각각 다른 메뉴, 신속한 서빙 등 우리에게 모두 어려움미션이지만 차질 없이 잘 수행하고 난 후, 팀의 연대감과 결속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독해진다. 게다가 팀장님이 “오늘 매출 ○○○원이 올라갔어요!” 라는 언급이라도 있는 날이면 환호도 지르게 된다. 이젠, 다신, 결코, 민방위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카페아띠 바리스타 활동의 가장 좋은 측면은 또 다른 데에 있다. 치매가 유전이라는 의학계 정설에 따라 치매 어머니를 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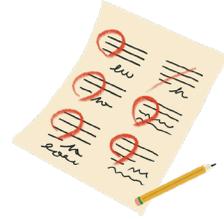
를 포함한 우리 식구들은 막연한 공포에 휩싸여있다. 그러나 막연한 미래를 걱정하느니 사소한 것이라도 오늘 해야 할 나의 일을 해 나가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카페아띠에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뇌를 깨우며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제발 치매만큼은 물려주지 마이스! 세종시를 출퇴근하며 통근버스에 지친 몸을 실었던 탓에 고질병이 된 척추협착증도 카페 근무하는 날이면 만보가 넘는 운동으로 많이 유연해졌다. 수술보다는 적당히 걷는 것이 좋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진리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인 줄 알았던 경상도 출신 남자가 이제는 카페아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주방은 자연스레 내 일터가 됐다. 최근 주방 점유율은 단연코 내가 아내보다 더 높는데 분리수거는 기본이요, 새벽 출근하는 아내에게 토마토, 케일, 당근과 사과를 넣어 만든 디톡스 건강주스도 내 일이며, 퇴근 후 돌아오는 아내의 간단한 저녁도 진심을 담아 차려준다. 이것이 진정 학원까지 등록시켜가면서 아내가 의도했던 행복이었을까? 고의든 아니든 일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활기차고 행복하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지만 국민연금과 더불어 나의 여가생활을 꾸려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퇴직 후 외식때 마다 아내가 먼저 계산대에 달려가기가 일상이었지만, 이젠 나도 가족들 외식에 당당하게 카드를 꺼낸다.

“나 원래 이런 남자였어. 나 바리스타라구!”

그래 나는 바리스타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노령층 과반이 넘는 경제인구에 당당하게 나도 포함됐다. 고된 일만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 소소한 일자리지만 최선을 다해 동료들과 함께 텐션을 높여 일하는 맛, 일터의 즐거움이 가정으로 선순환 되는 행복 환류가 내 주위에 맴돌고 있다. 노인도 행복과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노인도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나를 바리스타로 합격시켜 준 부평 카페아띠 팀장님과 담당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법적 노인 1년차에 접어든 나를 연락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노인일자리사업’에도 무한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울러 지금 한창 푸른 녹색 숲과 굴포천 산책로가 멋지게 어우러진 나의 일터 ‘카페아띠’가 힐링과 소통의 우리지역 핫 플레이스가 되길 소망해 본다.



함께 배우며 소통하는 학습도우미



이봉숙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저는 평생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2014년 8월 62세를 끝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교직을 떠난 지도 어언 10년. 교직에만 오랜 세월 근무해 온 저는 현직 때의 생활습관이 그대로 굳어져있어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재잘거리던 예쁜 아이들이 보고 싶어 동네 학교 안을 들여다보며 근무하던 때를 무척 그리워했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연간 교육과정계획을 세우고, 환경정리, 나무 심기 등 바쁜 나날을 보내다 은퇴를 하고 보니 가슴 은텅 빈 향아리가 되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집안 환경도 곱게 꾸며보고 꽃도 심어 봤지만 교육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고 열정 또한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전직 전문성을 살릴 일자리는 없을까?' 하지만 70이 넘는 나이에 제가 일할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고 도태된 노인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무력감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찾다 그러던 중 2023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 사회서비스형 「인지야 놀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학부모와 면담하고 소통해온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니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 후 합격 통보를 받고 합격증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마대학 합격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는 사회서비스형 「인지야 놀자」 사업 참여자로서 독거어르신의 인지, 정서 돌봄, 필사 학습도우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의 건강, 치매 등 심신미약과 더불어 빈곤 문제 확대에 의한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이번 「인지야 놀자」는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지능력과 정서를 함양해 드림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무기력에서 탈피할 수 있게 도와드려 건강하고 활기찬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드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학습도우미 참여자를 모집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거두는 일석이조의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학습도우미로 새 출발~!!출발에 앞서 참여자 교육(안전, 직무, 소양)을 받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습 도우미의 역

할과 업무, 근무 스케줄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 어르신 명단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 두근 거렸습니다. 평생 어린 학생들만 가르치다 평균나이 85세의 어르신들을 봐야 하니깐요. 어떤 어르신들일까? 면면이 살펴보니 90세를 바라보는 독거노인들이셨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 긴 시간을 홀로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일, 이십 년 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애처롭기 한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두 심신 건강한 어르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이 제게 주어진 생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나만의 열정과 친화력으로 소통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학습 도우미의 근무가 시작되었고, 대상 어르신들은 일곱 분이셨습니다.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학습도우미 이봉숙입니다” 라는 인사를 드리고, 교재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 일시를 정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이 청력이 떨어져 소통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시고 또렷하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가정방문을 하는 날. 어르신들 댁에 방문하여 교재를 나눠 드리고 첫 대면인사를 나누는 중요한 날입니다. 사람을 사귀에 있어서 첫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한 분 한 분 주소지로 찾아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들. 그 주름진 얼굴에서 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올라오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처음 뵈지만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어온 분들같이 마음이 통하며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에 수북이 쌓인 약 봉투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보며 최선을 다하는 학습도우미가 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대상자 어르신들의 신상과 특징을 꼼꼼히 파악하여 메모를 하였습니다. 훗날 많은 도움이 된 사소한 것들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알찬 학습지도를 하기 위해서 사전 교재 연구를 충분히 하고 예습을 철저히 하여 그 날 주제에 따른 관련된 보충지도도 해드렸더니 어르신들께서 학습에 흥미를 느끼시며 아주 열심히 수업에 임하셨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놀러 쓰시고, 곱게 색칠된 학습장에는 “참 잘했어요”도장을 꺾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학습교재를 토대로 질의 응답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생활, 취미, 추억담, 가족관계 등 자유로운 이야기로 서로 소통하고 친교를 나누며 꾸준히 인지능력 향상과 정서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그렇게 학습도우미를 시작한지도 벌써 4개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 분위기가 안정되어 각자 수업시간이 되면 교재를 펴놓고 대기하는 열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정해진 수업이 끝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시작하여 속 깊은 사생활 이야기까지 끝이 없습니다. 나는 학습도우미로서 동조를 하며 경청하는 편이지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

안 매일 안부를 묻고 학습을 마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어르신들은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쌓아 오신 생활의 지혜, 살림노하우, 요리법 등 많은 것들을 저에게 아낌없이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교재 연구와 예습을 통해서도 새로운 지식을 섭렵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학습지도 및 근무 일정은「인지야 놀자」담당 주임의 꼼꼼하고 탄탄한 진행으로 전혀 어려움 없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로한 어르신들이라 문제도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어르신을 찾던 일. 가정방문 시 약속시간을 잊고 외출하셔서 한 없이 기다리던 일. 낙상사고를 당하시고, 장염으로 오래 입원을 하셔서 애를 태우던 일. 휴무일을 잊으시고 왜 공부 안 하나며 전화를 주시면서 오히려 저의 안위를 걱정해주시던 일 등등, 이렇게 우리는 인간애와 친교를 나누며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문득 재직 시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고 커다랗게 쓰여진 현관의 큰 액자에 내 모습이 오버랩(overlap)됩니다.“맞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하는 거야” 수기를 마치며 저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조금이나마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력감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았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어준 어르신 일자리-그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인지야 놀자」 사업은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만족도가 아주 높은 훌륭한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학습도우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어르신들의 학습 참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해갔으며 자칫 매사에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여생을 보내기 쉬운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과 소망을 주는 큰 변화가 생겨 크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위하여 「인지야 놀자」와 같은 사업이 독거어르신을 포함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확대 실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심신 미약한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인지, 정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여생을 보내시게 하는 일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에 따른 전문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웹툰

노인일자리 브이로그

대구 남구 시니어클럽 방과후틈새돌봄사업 참여자

윤성애 선생님의 하루





**대구남구시니어클럽 방과후틈새돌봄사업
참여자 윤성애 선생님의 하루**



브이로그 보러가기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안내**

-기간 : 2023년 11월 29일 ~ 12월 29일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문의 : 1544 - 3388

웹툰

노인일자리 브이로그

T-플랫폼 물류 매니저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박호준 시니어의 하루





**T-플랫폼 물류 매니저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박호준 시니어의 하루**



브이로그 보러가기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안내**

-기간 : 2023년 11월 29일 ~ 12월 29일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문의 : 1544 - 3388

02

대국민 수기

- 1 노인일자리 사계(四季), 그리고 봄
여송이
- 2 다문화가정 학습지도 어르신선생님 ‘컵쿵쿵(감사합니다)’
유창열
- 3 그들은 일할 수 있다.
하미희
- 4 아이 캔 두 잇
박서연
- 5 울면서 보낸 어린 시절, 이제는 매일 웃어요
유화자
- 6 문제 일으키는 어르신에서 인정받는 어르신으로서의 과정
조은비

노인일자리 사계(四季), 그리고 봄



 여승이

노인 일자리의 봄

2009년 06월 08일. 대학을 졸업하고 첫 여름을 맞이하던 시절, 봉사활동을 진행하던 노인복지관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담선생님들이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공공형 기준 150명 정도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 경기도 노인 자살률이 높아 추가 편성된 일자리로 마련된 전담 자리였습니다. “기타지역특화사업_노인생명보듬이사업 어르신 6명, 노노상담_6명, 동화구연 교육 진행 및 봉사활동 진행을 통한 신규 내년도 일자리 양성 진행 25명” 6개월 계약된 저의 생애 첫 업무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적은 어르신들 관리를 했던 상황이 저에게 정말 천운 같게 느껴지지만 처음 노인일자리 실무자 분을 만나 뵙고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지, 4년 동안 배웠던 나의 학문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맡았던 생명보듬이 사업과 노노상담은 지속적인 교육과 사례회의 등이 이루어 졌던 사업입니다. 특히 생명보듬이 같은 경우는 노인상담사 선생님이 함께 사례회의를 주관하며 사업을 이끌어 주셔서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노인자살예방사업을 공부하며 상담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어르신덕에 함께 찾아 가고, 야외에서 홍보하며 함께 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전담인력 이었지만 지역 어르신들과 더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 어르신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활동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례회의를 하며,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할지 정말 즐겁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노노상담의 경우 또한 지역 내 동사무소, 지금의 행정 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방문객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활동해주셨습니다. 무려 14년 전의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기에 진취적인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 생명보듬이 사례회의 그 외에도 취업 알선, 문서 작성 등의 도움을 줬던 노노상담 업

무도 보수교육을 받으며 열심히 활동 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과 활동-교육-월례회의 과정을 거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자원을 알아보며 조손가정에게 한국사회복지사 협의회 지원으로 1년 동안 학비를 지원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4살 6개월 제 노인일자리 사업의 봄날 여정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 후 정규직 발령을 받아 3년정도 회계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경기도 특화사업이었던 실버인력뱅크 실무자로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여름 2013년 정규직이 되고 드디어 3년 만에 그토록 염원하던 노인일자리 실무자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던 업무가 노인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고, 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역시 생각했던 만큼 썩~한 여름의 핫한 날씨 같은 일상이 지속되는 사업 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사업을 좋아해서 인지 저는 그 후로도 계속 노인일자리 사업을 맡아 운영하여 현재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장이라는 직급은 달라졌지만 실무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함께 지내왔던 노인일자리의 여름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의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로 일하던 당시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기간에 젊은 여고생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길을 걷고 있던 어르신께서 복지관으로 전화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다소 몸이 불편하셔서 일자리 탈락을 하셨다고, 올해 덕에서 지금 복지관에 참여 신청을 위해 걸어가는 중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가고 있는 걸 길가는 사람을 붙잡고 확인 전화를 거신 겁니다. 결국 오시는 길에 시민들에게 시간과 서명을 받아 오셨습니다. 스마트 폰도 없던 시절 제게 건강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걸어온 시간, 증인까지 세우신 겁니다. 그 정도로 어르신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자리 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라도 빨리 오시기 위해 쉬지 않고 오셨을 어르신과 제게 그날은 그 어떤 날보다 활기찬 한 여름이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의 기억은 희대의 풍운아 군단 주정차 도우미 어르신들입니다. 2018년 2월 현재 복지타운으로 이전했지만 구 복지관에서는 주정차 시설이 없어 어르신들이 주정차 도움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평균 연령 80대, 6명의 남성 어르신들로 구성되었고 정말 정도 많고 좋은 분들이셨지만 주정차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직원, 어르신 할 것 없이 도로 위의 주차 선 규칙 이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용납되지 않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기관 입장에서는 어르신들도 이

해하셔야 하고 방문객도 이해 하셔야 하는 실무자의 다소 고군 분투기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정차 어르신들이 계실 곳도 마땅히 없어 민소매 런닝 위에 활동 조끼를 걸치고 계신 어르신들과 시원한 음료 한잔 마시며 함께 웃던 한 여름 나무 그늘 밑이 가장 생각나는 노인일자리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가을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10여년의 세월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수요처, 취업 알선, 사회서비스, 시장형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즐겁고 보람되고 알찬 시간들이 훨씬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나고 전담선생님들과 함께 일하며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소중하고 꼭 참여해야 하는 일자리이신 경우도 있었고, 노부부가 사시면서 치매인 아내를 모시고 일자리를 가고 싶은 어르신도 계셨으며, 남편과 떨어져 있고, 용돈이 필요해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손자녀들에게 줄 용돈을 벌고자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계셨고, 꼬끔한 손자녀들에게 선생님~소리 듣고자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하여 감사함을 표하는 시간들은 보람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시니어클럽이 없었고 실버인력뱅크를 부설로 운영하던 기관에서는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인생명보듬이사업, 2013년 연중일자리 시범사업이었던 실버보듬이, CCTV상시관제사업, 노노케어사업, 취업알선형인 인력과견형 사업, 사회서비스형 지원사업, 시장형 노노카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복지관 주정차 도우미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전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던 노노카페 시루공방이 가장 가을의 계절에 알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D 부문의 지원을

통해 카페 휴 2개의 지점(추후 시루공방으로 변경)과 복지타운 내 만나다:방 점을 개점하여 바리스타 12명의 어르신에게 전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원사업을 통해 한과 디저트 제작을 추가로 지원받아 2017년 이후 시루공방 시장형 어르신들이 22명 근무하며 바리스타, 한과, 양갱 제작 근무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스타분들과 근무 매니저의 활약으로 2017년 바리스타 협회에서 진행하는 “CBAK 2017 전국시니어바리스타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CBAK 2017 전국시니어바리스타대회 참여 2019년 일자리 수기 공모전 우수 표창 이외에도 2019년 일자리 참여 어르신께서 경기 노인일자리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수상의 기쁨도 있지만 보람있게 참여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는 담당자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제겐 가을의 계절과 같은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2017년 카페 휴 농협점 개점 2018년 카페 휴 여성회관 점 개점 2018년 만나다:방 개점 시루 공방 디저트 노인 일자리의 겨울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겨울과 같은 차디찬 시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팠고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둘 수 밖에 없는 사례는 해명할 수 있는 상대가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활동중에 사망하시거나 하신 것은 아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자원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주셨던 어르신이 한분 계셨습니다. 경륜전수활동에 참여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참여자 모집 인원이 그 해 년도 적었던 점과, 참여 신청자가 많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수 없는 부분임을 설명 드렸음에도 어르신께서는 본인이 기관에 노력하신 부분등이 서운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기관에 발길을 점차 끊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상황등과 겹쳐 어르신 상황을 알지 못했고 추후 다른 어르신에 의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많이 서운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참여 500명 가까운 어르신들을 전부 기억하고 관리할 순 없지만 그날 이후로 어르신들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면 최대한 찾아뵙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전화 한번 해보려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또한 전에도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코로나19 상황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 겨울과 같은 시련이었습니다.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도 문고리 방문, 전화 상담 등 대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야외에서 진행되던 월례회의 등은 전담선생님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너무도 힘든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22년 야외 월례회의 진행 21년 야외 거리두기 활동교육 진행 노인일자리의 다시 찾아온 봄 길고 긴 노인일자리의 사계절이 지나갑니다. 다시금 겪어보지 못할 시련이었던 코로나19 겨울 계절도 지나가고 다시금 봄의 계절이 드리웠습니다. 어르신들은 예전처럼 다양하게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학교 앞 사거리 초록 조끼를 입은 남부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학생들을 지키고(스쿨존), 영유아 시설에서 강사님들이 동화구연, 숲생태, 종이접기 수업을 합니다.(경륜전수),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깨끗한 환경을 우리 어르신들이 정비해 주시고(공공시설봉사), 식사 준비, 식사 보조, 활동보조를 도와주십니다.(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봉사 도움) 지역민들이 이동

하는 거리를 깨끗하게 다닐 수 있게 환경 정비를 해주시고(플로킹), 독거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아 주시며(노노케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도서관을 정비해드립니다.(도서관도우미) 할매들이 만드는 영양 간식 우리 쌀 한과와 양갱을 아이들 간식으로 판매하며,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멋진 카페 운영도 진행합니다(시루공방 3지점) ESG 실천을 위한 커피찌꺼기 재활용으로 제습제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커피재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의 편의시설 및 경로식당 지원에서 어르신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복지시설 도움).”

평택에는 4개의 복지관이 있고 남부에서 일하고 있지만 살고 있는 지역은 북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북부노인복지관 일자리 어르신 교통 수신호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로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수신호를 어기면 때론 차 안에서도 혼이 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어 저녁 5시 50분, 기관 내 편의시설 어르신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하시면 하루가 마무리 됩니다. 이제는 업무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고 앞으로도 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뵙게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일들도 경험할 것 같고, 비단 좋은 경험들만 있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도움, 사회적 참여, 건강 보탬 등 어떤 긍정적인 동기를 위한 참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좋은 추억이 더 많으신 날이 하루라도 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들을 위해 저도, 그리고 전담선생님들과 기관, 직원들과 부장님 관장님 모두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노인일자리 사업 항상 쪽 봄날이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습지도 어르신선생님 ‘컵쿵쿵(감사합니다)’

 유창열

먼저 다문화 가정의 취학 자녀들을 대신으로 1:1 가정방문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신 관계자 어르신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4면으로, 저와 태국국적의 아내, 딸 그리고 다문화가정학습지원사업 서비스를 받는 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4월 초 코로나로 인해 약 10여 년간 태국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모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 태국으로 주재원 생활을 시작하여, 2015년 퇴사를 하고 현지에서 작은 여행사 및 여행 관련 사업을 하던 중 국제적으로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 발생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한국 귀국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한국생활 적응 여부가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지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2022년 4월 4일 귀국하였습니다.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장모님과 처형들, 처가 식구들의 눈물어린 배웅을 받음과 동시에 나의 고향 한국 생활에 새로운 출발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온가족이 한국으로 가는 항공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들뜬 가족들과 달리 저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61살이라는 나이와 6년 전 받은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 몸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춘 누님 덕에 무상거주하게 된다는 부담감, 앞으로 가족들의 생계유지 등등 여러가지 심적 부담과 피곤함이 나의 몸과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방콕공항의 화려한 불빛이 저의 눈가를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귀국 후,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위한 교육 등록을 진행하던 중 우연히 부평구다문화지원센터 알게 되었고 기관의 도움으로 중도 입국 자녀들을 위한 인천 논현동 소재 한누리국제학교에 입학하여 위탁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들과 함께 매일 등교합니다. 스쿨버스가 있지만 아이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다보니 생리현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그 고통으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알고 난 후 매일 자가용으로 함께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의 신호등이 점멸 후 붉은색으로 바뀌며 정지선에 차를 멈추었을 때 아침 출근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지 교복 입은 학생들도 보입니다.

횡단보도 양끝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노란 안전 깃발을 들고 계신 모습도 보입니다. ‘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쌀쌀한 날씨에 봉사활동을 하시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앞 녹색어머니회와 경찰분들, 모범운전기사님들이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봉사하는 구나’ 라고 생각 했습니다.

또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산책로 나무 정지작업, 청소작업 등 어르신들이 형광조끼를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어르신들이 곳곳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구나 참 신기하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얼마 후 제가 본 어르신들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아들의 한누리학교 등하교를 시키던 중 부평구다문화지원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가정방문 수업 안내였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ㄱ ㄴ ㄷ ㅡ...가나라라 밖에 모르고 한국어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 밖에 모르는 아이에게 지자체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말 소중한 한글교육의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 교육이 벌써 1년이 되어 아쉽게 종료가 되어가는 시점에 다문화 가정교사 선생님이 2차로 부평

구 노인일자리 다문화가정자녀학습지원도우미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난 2월 하순부터 초등학교 교사직을 정년퇴임하신 다문화가정자녀학습지원도우미 어르신과 아들의 2차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노인일자리사업의 서비스를 우리 아이가 받게 되다니, 설레임반, 걱정반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1:1 과외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들이 과외를 받게 된 것에 너무 기뻐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하신 어르신과 아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태국에서 초등 2학년 과정 교육 중 찾아온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였고, 2년여의 교육 공백 중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한국어 공부, 적용하기 어려운 계절의 변화 어른도 적용하기 어려운데 아이에게는 힘든 한국 생활일 것입니다. 묵묵히 참고 견여주는 아이가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또한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르신 선생님과 아들의 교육이 시작된 후 어르신 선생님과 저는 몇 번의 대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 중 찾아오는 아들의 한국어 낱말 이해 부족, 교과서에 나오는 덧셈, 나누기, 곱하기, 속담, 공원, 지도, 신호등 등등 한국어 낱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르신 선생님과 의논 후 현재 아들의 교육 시간에 같이 참석하여 한국어를 태국어로 설명하고, 한국어를 이해시키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정하고 인자하신 목소리와 인품으로 아이를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도 거리감 없이 따르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아이에게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의사를 한국 어순에 맞게 제대로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알아듣고 이해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 좋은 국가 정책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분히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청년이라는 숫자에 불과한 제도를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경륜과 지혜를 겸비한 노년세대를 활용하는 정부정책이 다양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60~70세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산업, 교육계의 세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점차 많아지는 다문화가정과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결손가정, 특성화교육에 필요한 산업기술교육, 하이테크닉의 기술전수 등등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저의 자녀에게 이런 좋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학습지도 어르신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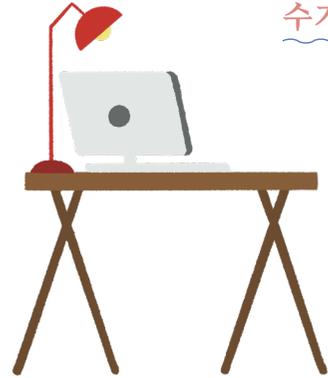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태국출신 다문화가정, 노인일자리사업 수혜자 아버지 유창열



그들은 일할 수 있다.

 하미희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든 존재, 노인일자리

나의 초등학교 시절, 등굣길 앞에 놓여있던 횡단보도를 건널 땐 항상 형광색 조끼를 입고 길을 안내해주던 할아버지가 계셨다. 나에게 ‘이제 가라~’라며 심심한 아침 인사를 건네던 말까지 기억이 난다. 성인이 된 지금은 어쩌면 그때 만났던 할아버지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을 회상해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꽤나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 속에 스며들어 온 것 같다.

지금은 일상을 보내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신 다양한 어르신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앞을 지키며 교통지도를 하시던 어르신, 복지관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어르신,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을 위해 지하철역 개찰구 앞을 지키시던 어르신 등. 내가 길을 오다가다 본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이 정도이다. 하지만, 뉴스 기사를 통해 금융도우미, 편의점 관리, 인형극 공연단 등 이색적인 노인일자리도 있음을 알게 된 이후 본 사업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어 본 수기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고, 이제부터 내가 만나고 느낀 노인일자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내려 가 보겠다.

내가 마주한 노인일자리

①가까이에서(직접적으로) 마주한 노인일자리

-파릇파릇 저감식물, 미세먼지 NO! (부산 동신초등학교 수직정원가꾸미사업)

현재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한 초등학교 내의 수직정원가꾸미사업이다.

현재 나는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배정 받은 업무는 부산 동신초등학교의 도서관 업무보조 활동이다. 이곳 초등학교 도서실 안엔 파릇파릇한

식물들이 모여 있는 힐링존인 수직정원이 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가끔씩 수직정원 앞에 앉아 식물 사이에 숨어 있는 동신이(새 모형의 이름)를 찾기도 하고, 식물에 대한 정보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한다. 이 식물들을 관리하는 분들은 부산서구시니어클럽에 가입된 어르신 두 분이다. 어르신들은 ‘수직정원가꾸미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기에 수직정원에 배치된 저감 식물을 관리하시며 실내 환경개선 활동을 하고 계신다. 어르신들은 언제나 본인들의 힘으로 해야 할 일들을 완수 하시고 퇴근을 하시기에 내가 드리는 도움은 어르신과 식물의 모습이 잘 담기게끔 활동사진을 찍어드리는 일 뿐이다. 언제나 책임감 있게 일을 완수해주신 덕분에 수직정원은 파릇파릇 건강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어르신들께 주 업무가 무엇이나 여쭙보니 이 수직정원은 공기를 맑게 해주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에 도서관 공기가 맑게끔 유지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다. 그렇기에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수통에 물을 채우고, 식물 잎을 깨끗하게 닦거나 다듬어 주고, 주변 청소 등의 일을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식물들도 자신들이 예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애정을 다해 가꾸고 있다 말씀해주셨다. 나는 답변을 듣고 어르신들이 식물을 대하는 순수한 마음이 보였고,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도가 높으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수직정원 덕분에 아이들의 볼거리가 늘었고, 도서관 내에 있을 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어 도서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생각한다.

한 어르신은 이 도서관에 있는 책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렇기에 나에게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 달라 부탁하신 후 소설책을 자유롭게 빌려 가신다. 반납하시면서 책이 재미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날에는 나 역시 보람차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어르신은 노인일 자리를 통해 사회활동(일)과 여가활동(독서)을 모두 하실 수 있어 근로와 자기개발을 동시에 하고 계신다. 이렇듯 노인일자리는 어르신의 심심하지 않은 노후생활 보장으로 삶의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 것 같다.

②일상에서(간접적으로) 마주한 노인일자리

하루는 시험공부를 하려고 재학 중인 대학교의 도서열람실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한적한 도서열람실 안에서 시니어클럽 조끼를 입으신 어르신 몇몇 분께서 환경미화를 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난다. 어르신들은 학생들이 머물고 간 자리를 정리해주셨는데, 누군가가 선뜻 나서지 않는 이상 쉽게 더러워질 수도 있던 공간이 어르신들의 손길 덕분에 청결한 공부환경이 유지될 수 있어 감사하였다. 혹여나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라 조용히 걸으며 청소를 해주시던 그 작은 배려의 모습에서 섬세함까지 느껴졌다.

노인일자리가 참여자,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1인가구의 수는 1,824,434명이라고 하며, 전체 일반 가구 중 독거노인가구의 비율은 총 8.5%이라는 비율이라는 수치(자료 출처 : 통계청 - 전국 독거노인가구비율)도 보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기에 국가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해졌다. 그 다양한 방안 중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사업은 바로 노인일자리이다. 노인일자리가 참여자(어르신)와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껏 바라본 것들을 토대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겠다.

먼저 노인일자리가 참여자(어르신)에게 끼치는 영향은 첫째, 잃어버린 경제력 회복이다. 나는 노인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아 성인이 된 이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및 현장실습을 하였고, 이러한 경험 덕분에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이제껏 마주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수입 없이 늘어나는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이 있다고 한들 마음 편히 의지할 대상이 되어줄 수 없기에 스스로 위축된 노년기를 보내고 계신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경제적 고민을 덜어주는 방안은 바로 노인일자리 사업일 것이다. 본 사업 덕분에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 마련으로 그들의 잃어버린 경제력을 되찾게 되었기에 어르신들의 든든한 존재이다. 둘째, 사회참여 도모이다. 사람은 학교, 회사, 동아리 등 자신이 속한 관계망을 통해 소속감을 느낀다. 허나, 어르신들은 퇴직 등으로 인해 홀로 노후를 보내는 시간이 많아 외로움, 허무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쉽게 들 것이다. 이로 어르신들 역시 사회에 함께 어울려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채워주는 건 바로 노인일자리이다.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심에 감사하다.

사회에 끼치는 노인일자리의 영향은 첫째,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老)에 대한 인식(이미지)은 은퇴, 고독사, 병약 등과 같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 연상이 쉽게 들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부르기 어렵게 될 것이라 보며, 노인들을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할 국가적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둘째, 노년층의 경제시장 참여 활성화이다. 노화가 찾아오면 은퇴,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다. 본 문제를 경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소득 감소 = 소비 감소’이고 이는 노년기 인구의 경제시장 참여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나의 예상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제력 회복을 촉진시켜 그들의 경제시장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말하고 싶다.

그들은 일 할 수 있고, 일하고 싶어 한다.

사실 나 역시 노인일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을 때 일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신기하고 낯설게 느껴졌던 게 사실이다. 허나, 지금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로 근로 중이신 어르신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어르신도 일을 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을 보면서 들게 된 생각은 첫 째, 어르신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 나는 고령의 나이에도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저 멋지고 존경스럽다. 그렇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과 같이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르신들의 일에 대한 높은 열정 덕분이라 생각한다. 둘째, 노화에 거부감이 들지 않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노화가 찾아오고 나 역시 노인이 될 것이다. 아직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내가 할머니가 되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면 어찌지?’ 라는 생각이 들어 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존재했다. 허나 지금은 국가가 노인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어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나의 노후 역시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노인일자리가 일상 곳곳에 존재하게 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그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자신에게 업무가 주어진다는 것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계셨다. 따라서 나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과 열정을 보았고, 그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우리 사회는 노인을 그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넓혀야 할 것이다. 현재 그 시각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본 사업 덕분에 어르신들은 삶의 질 향상 및 잃었던 근로의욕 복구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년기의 든든한 동행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싶다.

수기공모전을 마치며

나는 본 공모전 참여를 통해 평소 지니고 있던 어르신과 노인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껏 지니고 있었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노인은 노화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것임→노인은 연세가 있으심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분히 있으시고 일을 하실 수 있음), 어르신들의 근로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자세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덕분에 노인의 근로가 존중받는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언제나 의미 있고 행복한 노년기의 삶을 보낼 수 있게끔 응원할 것이며, 우리의 결엔 언제나 노인일자리가 함께 하고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노인의 근로활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수기를 마치도록 하겠다.



아이 캔
두 잇We Can
Do It! 박서연

무엇을 만들어도 “우와” 무슨 말을 해도 “우와” 노인 일자리 동료들과 수행기관 수요처에서 늘 어가는 제가 인정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길고 긴 그의 이야기보따리를 열었다.

56년생으로 4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나 27세에 결혼을 한 후 200만원 을 들고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1남 1녀를 기르며 야채경매, 과일경매를 배워 타향에서 딸 시집보내며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젊은 날을 살아가는 것에만 매달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며 25년을 죽어라 살아온 그에게는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심한 당뇨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배는 점점 나와 고개를 숙일 수가 없고 걷기와 앉아 있기보다는 누워 병원 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아 가족들과 상의 한 결과 공기 좋은 고향으로 가서 요양을 해보기로 결정하였다. 낡고 자란 고향마을로 2009년 아내의 손을 잡고 향하였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까짓것 한번 부딪혀보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나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 만의 생각이었는지 마을주민들의 냉담한 태도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심했다.

시골 인심이란 말은 옛말인가?

지금의 시골은 담이 없어도 마당을 밟으려면 전화먼저 해야 하고 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라도 이름을 부르며 현관문을 열던 정 없는 시골은 그가 알던 25년 전의 내 고향이 아니라고 하며 그의 큰 눈에 눈물이 고여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마을주민들의 따가운 눈빛과 말속의 가시는 우리부부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다며 12년 농촌생활을 하며 아내는 “여보 다시 살던 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라는 말 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가슴을 치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라고 한다. 치료를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그들에게는 마음의 병은 더 깊어가고 있었다.

1년만 더 살아보고, 그래도 부모님과 형제들이 같이 살던 곳인데...

1년만 더 살아보고 쉽게 다시 고향을 떠 날 수가 없어 아내를 위로하고 치료를 받으며, 넓은

마당이 있는 집과 맑은 하늘을 벗 삼아 무미건조한 고향에서 아내와 그는 이웃이 무엇인지 친구가 무엇인지 모르고 운둔생활 아닌 운둔생활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예전과 같이 병원 진료가 있어 동네를 막 벗어나려는데 노인들이 같은 색의 조끼를 입고 모두 모여 회의 같은 것을 하고 있어 이상하다 등산들 가나? 생각하며 가던 길을 재촉해 병원을 갔으나 계속 머릿속에서는 노인들이 같은 색의 조끼를 입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는 궁금증은 계속하여 사라지지 않았다.

그 중 한분인 옆집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 보리라 큰맘을 먹고 아내에게 옆집 아주머니에게 뭐 가져다 드릴 것 없냐고 하니 작년에 담근 매실 청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막상 가려하니 세발만 뛰면 되는 그 아주머니의 집이 십리는 되는 것 같이 생각되어졌다. 드디어 아주머니를 만났다. 이내 어렵게 말 한마디를 붙였다. “아침에 모두 같은 색의 조끼를 입고 어디 다녀오셨습니까?”라고 하니 아주머니는 “이(사투리) 노인일자리 허는 날이여~ 집이는 도시 살다 온 이가 그것도 몰러 도시 산다고 다 똑똑 헛게 아닌 가비네!”

“노인일자리” 그의 귀에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계속 메아리가 되어 그의 귀에 들리고, 들리고 또 들리고 하여 면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 동네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여 문의를 하니 딱 그가 할 수 있고 그가 하고 싶은 일 이었다고 한다.

담당자가 설명한 노인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노인일자리가 있는데 1일 3시간 10일 활동 하는 일, 또 하나는 3시간 20일 활동 하는 일 수행기관은 어디 어디 라고 설명을 친절 하게 해주었다.

그 설명을 들은 뒤로 다시 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허나 다시 일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네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노인일 자리를 하려면 동네 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동네 분들이 같이 하지 않을 것을 아니 어찌해야하나? 큰 고민은 뒤로 하고 움직여야 건강도 다시 돌아오고 작지만 병원비도 내손으로 벌고 일단 움직여보자! 하고 벌떡 일어나 집근처의 노인복지센터로 기대감 반 불안감 반을 가지고 도착을 하니 반기는 이는 다름 아닌 막내 동생 친구가 넙죽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형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며 얼굴과 몸을 쳐다보며 건강이.....라고 하며 말을 잊지 못하던 그때에 그가 먼저 말을 했다 “동생 여기서도 노인일 자리를 한다지?”

대화는 그렇게 이어져 갔고 막내 동생 친구는 노인일 자리 담당자와 정확한 설명을 들으라며 소개를 해주었다. 담당자는 어르신 건강상태가 노인일 자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지금 말고 몸 이 좀 좋아지면 내년부터 할까 하고” 담당자는 우선 연락처만 받고 그와 헤어졌다.

그때부터 그는 노인일자리보다 먼저 동네사람들과 친해져야지 하는 생각으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대화를 꺼려했던 그가 모두에게 친절하며 당당하게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고, 길에서 마주치면 먼 길 돌아 가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그의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다.

형식적으로 동네 분들과 인사만하고 집안에서만 지내던 생활이 집 밖으로 생활무대를 바꾸며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이 되었고, 검은 색을 띠며 좋지 않았던 얼굴도 점차 평온하고 미소 짓는 얼굴로 변해가면서 동네사람들이 집 마당을 밝은 햇수도 많아지고 다시 고향을 떠나자는 아내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드디어 노인일자리 신규접수 받는다고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펴려있는 것이 꼭 나를 빨리 오세요. 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접수 후 얼마 시간이 흘러 1월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와 그 옛날 초등학교(국민학교)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아 엄마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던 것처럼 아내에게 제일먼저 말을 하니 아내는 관심도 없었다. 그저 혼자만 들뜬 기분도 어쩔 수 없었다. 고향으로 내려 온지도 벌써 10년이 흘러 노인일자리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겨 이장 선거에 나가 마을 일을 앞장서서 하고, 노인일자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며 여러 이웃들과 친밀하게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함과 동시에 아픈 몸에 흐르는 피가 깨끗해지며 날아갈 것 같았다고 한다.

노인일자리 활동을 하며 그가 못 하는 수리는 없었다. 문고리, 수도, 화장실문, 시설주방, 싱크대, 물받이 등등...

야속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지만 그의 행복감과 자신감은 집안의 환경과 마을의 환경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었다. 다시 살던 도시로 가자고 만 하던 아내도 응원을 해주기 시작 했고, 동네주민들도 이장이 바뀌니 동네입구가 꽃으로 예쁘게 꾸며져서 시골말로 동네 값어치가 올라 간다고 기뻐하는 모습에 그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에 매진하여 좀 더 가꾸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장 업무도 사력을 다하여 열심히 하였고, 노인일자리 업무도 그의 손만 닿으면 척척 해결되어 두 번째 인생에서 그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고 껄껄 웃으며 수줍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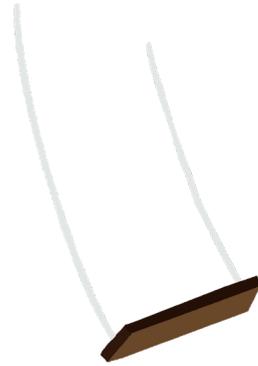
그렇다 모두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손자들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의 특성이지만 그는 유독 그것이 강했다. 타향에서 25년 살며 내가 아니면 내식구들 어찌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온 결과이다. 노인일자리라는 사업은 나이 들어가는 우리 노인들의 또 다른 인생이며 누구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막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세 번째, 네 번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인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일자리로 또 한 번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이도 있을 것이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생계를 유지 하며, 누구의 말처럼 “노인일자리가 자식보다 낫네.” “밤에 길을 잃으면 늙은 말을 따라가야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 는 말이 있듯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하며 참여자분들의 삶의 지혜는 喜怒哀樂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소중한 지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고, 참여자분들과 같이 기쁘고 행복하게 늙어 가는 것 같아 노인일자리 담당자로서도 늘 감동의 하루하루 보내며 지금보다 좀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노인일자리 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오늘도 참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즐거운 고민을 한다.



울면서 보낸 어린 시절, 이제는 매일 웃어요.

 유화자



저는 산곡 노인 문화센터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제가 아홉 살에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엄마랑 학교에 가서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께서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려 하다니 하면서 엄마를 야단치고 때리기까지 하여 제가 울면서 다니는 학교에 다니겠다는 말을 안할테니 엄마를 때리지 말아달라고 울었어요.

그 후로 학교에 못가게 되는 슬픔을 안고 살다가 열두살이 되었는데도 내 이름을 못쓰는데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자를 저렇게 두지 말고 돈 많고 자식이 많은 공무원 집에 일하는 사람으로 보내면 밥도 배부르게 먹고 공부도 가르쳐주신다니 그곳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시어 어느 추운 날 동네 아주머니를 따라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공무원 집에 도착하여 낮에는 밥하고 빨래청소를 하며 바쁘게 살고 있는데 집주인께서 부르시더니 이제 화자도 공부를 시작하여야지 하시면서 공책과 연필을 주시며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이 너무 많아 화장실에 들어가 책을 보곤하였는데 7년이 지나도 실력이 늘지 않아 그 집을 나와 직물공장에 취직을 하며 잘 다니고 있는데 반장님이 내가 결혼을 하게 되어 이 자리를 니가 맡아서 하여라 하는데 학교를 못 다녀서 한글을 잘 모른다는 말을 자존심이 있어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산곡노인문화센터의 노인일자리에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곳에 들어와 한글을 배우는데 이곳은 선생님 한분이 학생 한사람씩 가르쳐 주시니까 재미가 있어 열심히 배워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여 좋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어르신에서 인정받는 어르신으로의 과정



조은비

안산시니어클럽

본 사례는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어르신이 문제 일으키는 어르신으로 낙인찍힐 뻔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담은 사례입니다.

김태한(가명) 어르신을 3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것은 같이 일하는 어르신들과 다툼이 발생했다는 초등학교로부터 발생한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어르신들과 어떤 갈등이 생긴 걸까요?

어느 연말, 김태한 어르신은 어느 어르신들과 같이 차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모집 현수막을 보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안산시니어클럽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어르신은 살짝 긴장한 듯 보였으나,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한껏 꾸미고 오셔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말씀하셔서 지역사회 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지도 활동을 하는 스쿨존교통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어르신과의 두 번째 만남은 참여자 활동교육일이었습니다. 100여 명의 어르신이 우르르 오셔서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받고,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초등학교 명패대로 모여 앉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김태한 어르신은 누군가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같은 소속인 ○○초등학교 참여자를 모아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대부분 팀장 역할을 하는 참여자가 있었으나, ○○초등학교는 팀장 참여자의 부재로 더 어수선할 수 있는 상황에 김태한 어르신의 도움으로 활동교육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 시작되면 ○○초등학교도 팀장 참여자가 필요하기에 통솔력을 갖추고 비교적 연세가 적은 김태한 어르신께 팀장 역할을 부탁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3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어르신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어르신들 간 다툼이 발생했다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민원전화를 받고, 상황파악을 위해

어르신께 기관내방을 요청드렸습니다. 일부 현장 목격자들을 통해 들은 상황은 김태한 어르신이 팀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같이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권위적으로 행동해오셨고, 일부 어르신들이 불만을 터뜨린 상황이었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했으나, 김태한 어르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은 사무실에 오시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오라 가라 하느냐”, “결국 나를 못 믿어서 오라고 한 것 아니냐”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의 손을 맞잡고, “저를 도와서 팀장 역할을 해주시는 어르신을 믿기 때문에 더 어르신의 이야기가 듣고싶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은 그제야 차분해지셨고, 항상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 뒤 쓸쓸했던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본인의 인생사를 말씀하시며, 이제 자녀들마저 외면하여 혼자가 되어 앞으로의 삶을 위해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한껏 꾸미고 나온 날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주위에 내 편 하나 없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보란 듯이 잘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제 2의 인생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왜 마음처럼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은 한때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대형 항공사에서 여러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며 관리자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오랜 직장생활로 직장 내 규칙과 예의를 중시하던 분이었습니다. 같이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각을 하시거나, 나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잔소리했던 것이 화근이라고 하시며, 본인이 활동을 그만두어야 억울함이 풀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던 모습과 어르신의 본심을 알기에 담당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어르신들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더 나아가 앞으로 어르신이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선 돈 한 푼이 아쉽다고 하신 어르신에게 이 작은 생활비마저 끊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활동을 중도포기 하지 않도록,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첫 목표였습니다. 어르신은 다혈질 성격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으로, 힘들게 살아온 삶을 증명하듯 피해의식과 의심이 많은 편이셨습니다. 어르신에게 불의를 참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화가 나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실 때마다 전화를 주셨고, 담당 사회복지사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몇 시간이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 사회복지사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어르신이 담당 사회복지사를 대신해 팀장 역할을 하고 있으

니 잘 따라주시길 직접 공지하며, 어르신이 팀장으로서 원활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더 이상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고,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믿음, 관계도 두터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꾸준히 어르신과 연락을 주고받던 어느 날, 어르신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눈여겨본 ○○초등학교 주변 파출소장 추천으로 감사장을 받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담당 사회복지사, 같이 활동하는 어르신들, 학보모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주변 파출소장 등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팀장 참여자가 되셨고, 피해의식과 의심 많던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신감과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어르신으로부터 또 두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여자친구가 생기셨다는 소식, 두 번째 소식은 연락이 끊겼던 막내딸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르신은 사무실로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함께 오셨고, 어르신은 본인이 다혈질 성격으로 인해 불같이 화를 내실 때마다 여자친구가 소화기처럼 화를 가라앉혀 주신다고 한참 자랑을 늘어놓고 가셨습니다. 어르신의 긍정적인 변화에 저 또한 행복했고, 앞으로 어르신의 제 2의 인생이 기대됩니다.

어르신은 50살 가까이 어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위로를 받으며 ‘엄마’ 같다고 하십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 이야기하고 위로받던 그 시절이 생각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어르신’으로 낙인찍지 않고, 어르신의 결핍을 알아봐드리고, 어르신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제 2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가 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노인의 4고(4苦; 무위고, 고독고, 병고, 빈고)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이를 모르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어르신들이 많이 발굴·연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3

어린이 공모전 수상작

1 어린이 [편지] 부문

2 어린이 [그림] 부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03-1

어린이 편지 부문

- 1 김민지(대상)
- 2 공민정(최우수상)
- 3 김서빈(최우수상)
- 4 박하연(우수상)
- 5 조혜인(우수상)
- 6 최서연(우수상)

기생충박물관에서 만난 특별한 선생님



김민지

○○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5월 6일에 기생충박물관에 방문했었던 김민지라고 합니다. 별 기대 없이 갔었는데 너무 인상 깊게 남아 이렇게 감사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AI가 배달하는 레스토랑에서 엄마와 파스타를 먹고, 신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기생충박물관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생충이라고 하면 징그럽고 안 좋은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무료라고 해서 궁금한 마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막상 들어가니 낯설기도 하고 막막했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기생충박물관은 다른 박물관보다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박물관들은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 기생충박물관에서는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이 친근하고 다정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박물관은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층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기생충 박사가 쓴 기록이었습니다. 기생충을 발견하여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후에 모양을 따라서 세밀히 그렸던 기록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생충 포토존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사진도 찍어주셨잖아요? 제가 비록 기생충이 되었지만요~ㅋㅋ

설명 도중에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옛날에는 기생충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똥을 조금씩 퍼왔다고. 그런데 똥을 안 가져온 사람은 남의 똥을 조금 퍼서 담아 속였던 적도 있다는 이야기에 계속 웃음이 나왔었습니다.

나오는 길에는 기념품으로 현미경 만들기 키트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하자 똥을 퍼서 담았던 봉투를 “채변봉투” 라고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변에는 기생충박물관에서 만난 선생님들처럼 노인일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앞에서 깃발을 들고 우리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

도록 도와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쓰레기를 청소해주시는 분들도 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우리 할머니도 일을 하십니다. 맨날맨날 아프다고 하면서 일하는 할머니를 보면 엄마는 잔소리를 하시고 할머니는 종일 집에 있으면 뭐하냐고 화를 내십니다. 저는 화를 내시는 할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엄마는 할머니가 외롭고 적적하셔서 그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우리나라에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기대여명이 남성은 23.4, 여성은 28.2로 계속 증가 추세라고 그래서 고령에 어르신들이 단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지금은 건강하셔서 종일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나이가 들면 지금 하는 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할 것 입니다. 선생님들 처럼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학교 앞에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할아버지도, 공원에서 쓰레기를 청소해주시는 할머니도, 기생충 박물관에서 만난 선생님들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분들이고 고마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AI로봇이 요리를 갖다 주는 식당도 신기했지만, 그것보다도 기생충 박물관에서 들은 옛날이야기가 저는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기생충 박물관에 가서 특별한 경험도 많이 했고, 참 유익했기에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친구들에게도 꼭 가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박물관이에요. 나중에 다시 놀러갈게요! 그때도 가면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



공민정

○○초등학교

TO.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9학년 대반 공민정입니다.

이침, 저침으로 학교 근처에서 만나면 항상 가족처럼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건물들이 많이 있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길 등에서도
편하게 안전하게 무섭지 않을 수 있게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저번에는 저에게 희망은 모습으로 인사도 해주셨는데 제가 친구랑 이야기하느라 바빠서
인사 못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자꾸만 생각이 나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
답니다. 눈 마주치고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항상 그 자리
에서 저희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꼭 먼저 인사드릴게요!

가끔은 제가 볼 때 위험하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이해가 안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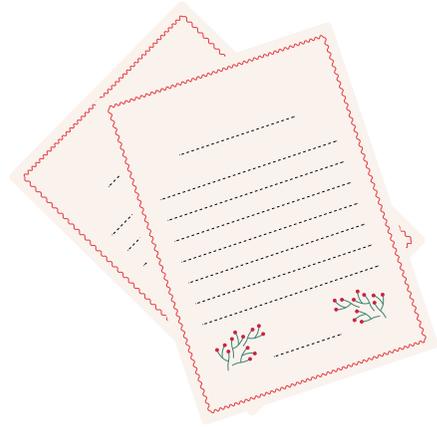
환내는 걸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아이들 때문에 속이
참 상하시겠다. 라고 생각이 든 적이 많아요.
저는 꼭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 건널게요! 약속
매일 웃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운 마음 가득 담아 만평이가 썼어요 😊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서빈

○○유치원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고마운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일성유치원에 다니는 김서빈입니다.

우리 동네는 사람도 많고, 특히 차가 너무 많이 다니는 복잡한 동네 이지요. 저는 아침마다 유치원에 갈 때 찾길을 건너가야 한답니다.

그 길을 지나갈 때 마다 항상 너무 많은 차들이 다녀서 길을 건널 때 많이 무섭기도 하고 너무 불편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께서 교통안전 도우미로 우리 동네에 오셔서 찾길에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 시작하셨답니다.

그 뒤로 저는 차가 많이 다니는 찾길도 안전하게 잘 건널 수 있게 되었고, 차가 많이 지나가도 할아버지 덕분에 하나도 무섭지 않게 되었답니다. 교통정리 해주시는 할아버지께서는 꼭 경찰서에 계시는 교통 경찰관 아저씨처럼 너무 멋졌어요.

할아버지! 매일매일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진짜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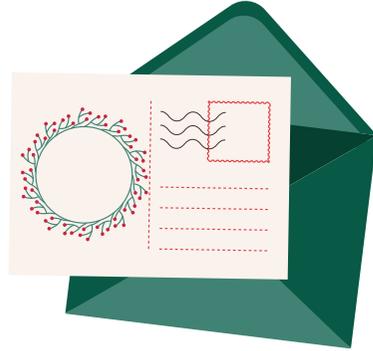
할아버지! 많이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설거지 힘들지 않으세요?



박하연

○○지역아동센터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하연이 왔구나~학교 잘 다녀왔니?”

“네~”

학교가 끝나고 아동센터에 오면 제일 먼저 누리의 저녁 급식을 챙겨주시는 할머니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아동센터 현관문을 열면 딸랑~종소리가 나고 바로 부엌을 지나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그 길에 할머니 선생님께 인사를 하면 학교를 잘 다녀왔는지 반갑게 맞아주시고 웃어주신다. 3학년 때 처음으로 아동센터에 다니게 되었고, 이곳에서 5학년이 된 지금까지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할머니 선생님을 만나고 있다. 우리 센터 급식은 정말 맛있다. 할머니 선생님이 항상 밥을 정성스럽게 밥을 해주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신다. 더구나 센터 아이들 이름을 모두 알고 계셔서 아이들이 센터에 오면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꼭 우리 할머니 보는 것처럼 너무 좋다. 먹기 싫은 채소를 건너뛰면 한 개라도 먹어보라며 말씀해주시고 다음번엔 다른 방법으로 요리해주신다며 말씀해주신다. 지난주 특식으로 로제떡볶이와 치킨이 나왔는데 접시가 싱크대에 엄청 쌓여 있었다. 난 잠깐 걱정이 되어 “할머니~설거지가 너무 많은데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드세요?”하고 여쭙보았다. 할머니 선생님은 웃으며 “내가 하는 일이 이런거지요~걱정마세요~” 말씀해주시며 웃으셨다. 그러더니 빨간 고무장갑을 끼우시고 뜨거운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셨다. 정말 빠른 속도로 접시가 순식간에 깨끗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다. 힘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편하게 밥을 먹고 간식을 먹는데 할머니 선생님은 우리가 먹은 것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 선생님이 지나간 자리마다 센터가 깨끗해지고 책상이 깨끗해졌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이 날만큼 센터에서 우리 급식을 챙겨주시는 할머니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로 마음을 전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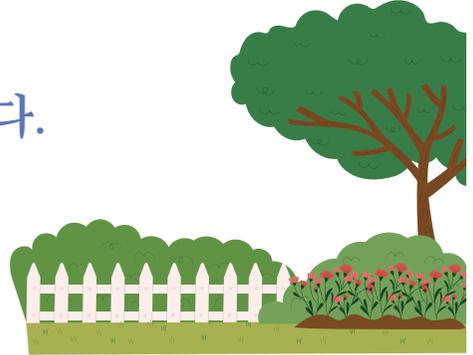
“할머니 선생님~정말 감사드려요~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저희 센터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저희들과 웃으며 즐겁게 지내요~사랑해요~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조혜인

○○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oo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조혜인이예요.

제가 1학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처음 봤을 때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몰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깃발을 흔들면 횡단보도의 차들이 멈추는 것을 보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 했어요.

1학년 때 엄마가 일찍 출근하셔서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서 무섭지 않았고 씩씩하게 학교로 등교할 수 있었어요. 2,3학년 때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에 가지 못했는데 그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를 지켜주셨지요.

저희들이 체험학습 가는 날이나 운동회를 할 때도 한눈에 알아봐 주시고 ‘재밌게 하고오렴’이라고 말해주실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가오거나 눈이 올 때 우산을 쓰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렴’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뛰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운 날에는 땀이 나지 않도록 부채로 바람이 나게 하시는걸 보면 정말 감사하고 노인일자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5학년이 되어서 씩씩하게 학교에 가지만 엄마는 항상 말씀하세요. 노인일자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 곳으로 학교에 가라고요. 안 그러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데요.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몸이 안좋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볼 때 마다 저는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희를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어서 좋아요.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최서연

○○어린이집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짹짹서방 이야기는 참 재미있었다.
 할머니가 짹짹하고 이야기 할 때 너무 재밌어서 웃음이 났다.
 할머니는 항상 다정하다.
 우리를 보고 예쁘다고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해준다.
 나도 할머니가 참 좋다.
 이야기가 끝나면 안아주시는데 행복하다.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 또 듣고 싶다.
 이야기 할머니 우리에게 또 와주실꺼죠?
 사랑해요~
 할머니 감사해요.



03-2

어린이 그림 부문

- 1 강다인(대상)
- 2 김진희(최우수상)
- 3 이정윤(최우수상)
- 4 김지강(우수상)
- 5 김지건(우수상)
- 6 배수연(우수상)

안전지킴이


 대상 강다인

매일 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학생들을 만겨주던 안전지킴이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렸다.
 안전지킴이 할아버지는 나에게 환한 얼굴로 반겨주셨다
 덕분에 학교 갈 때 기분이 좋고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
 참 고마운 분들이다.



 최우수상 김진희

한 지역에 오래사신 어르신들은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전통이나 옛날이야기 등을 해주시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시며 일자리도 해결되고 문화관광 전통체험이 더 특색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최우수상 이정윤

제가 조금 어렸을 때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즐겁게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었고 할머니가 들려주시니까 더 실감나고 옛 이야기를 구연동화처럼 들려주시니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위해 ‘이야기 해주시는 할머니’가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너무 좋은 경험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 진다면 일자리가 없으신 노인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 제 경험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책 배움



 우수상 김지강

어렸을 때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끔씩 유치원에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와서 책을 읽어주시고 함께 놀며 책에 대한 이해를 심어 주었습니다.

이번 노인일자리 대회에 참가해서 책을 읽어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고령층의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어르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와중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책을 읽고 공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숲 설명회



 우수상 김지건

숲을 걷다보면 가끔씩 신기한 것들을 본적이 많은데 한상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답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인일자리 대회에 참가하면서 숲해설사를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있다고 하여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숲해설사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주시는 어르신 분들이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들과 어르신이 설명해 주시는 숲설명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수상 배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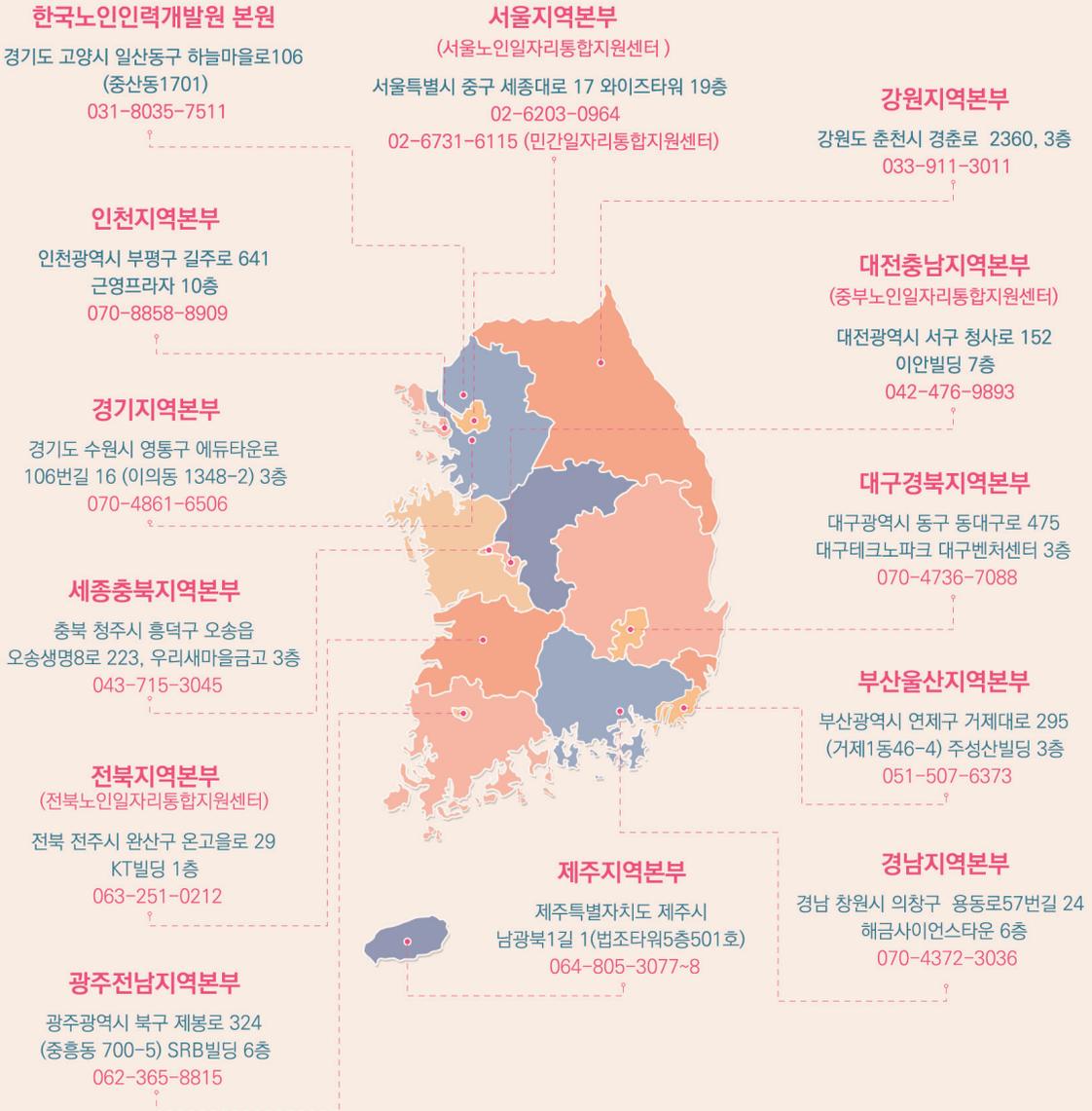
지난겨울 청양목재 박물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혹부리영감 인형극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라 더 재미있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 및 지역본부 연락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 및 지역본부 연락망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기집

발행일: 2023. 12.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행인: 김미곤

만든이: 홍보기획부



Copyright ©202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 저작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